

# 보세요. 손바닥에 구멍이…



눈의 '착시' 현상을 실험해 보고 있는 과학지도사들.

## 과학 쉽게 풀어주는 과학지도사…광주·전남여성과학인지원센터 31명 양성

'어려운 과학 현상,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라'  
 지난 23일 광주·전남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가 수료식을 갖고 첫 배출한 과학 지도사(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Science Communicator)에게 주어진 임무다.

과학지도사는 어려운 과학현상을 쉽게 설명해주는 전문가. 교육 과정은 단계별로 거친 뒤 초·중·고교생들에게 과학현상을 알기 쉽게 풀어주게 된다.

학생들에게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출산·육아 등으로 연구실을 떠났던 이공계 고학력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로 광주·전남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등 전국 지원센터에서 양성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원센터의 경우 첫 수료생 31명 중 절반이 석·박사급이다.

하루종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 때문에 출산·육아 등으로 연구실을 떠났던 이공계 '과학 아줌마'들도 많다.

빈명미(여·39)씨는 "결혼한 후 3명의 아이

를 키우면서 10년 가까이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전공을 살려 아

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대학 때 배운 지구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호기심 많은 학생들을 과학자의 길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고 싶다"고 했다.

지난 12월부터 12주간 이뤄진 교육은 철저하게 쉽고 재미있는 과학이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확산시켜 대중 속으로 파고 들게 한다

는 '과학 대중화'에 맞춰졌다.

이날 수료식도 '과학 전도사'들이 과학 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실험 방법과 도구를 활용한 강의를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봉영신(여·39)씨 등은 종이를 원통 형태로 물들 말아 눈에 대고면 곳의 물체를 보거나 손

바닥을 원통을 따라 움직여 보면서 눈의 '착시'

현상을 대해 설명했고, 박현민(28·조선대 전

기기공학과 박사 과정)씨와 조인수(29·전남대

기계공학과 석사과정)씨는 수소를 만들어 저

장한 뒤 연료 전지를 활용, 전기 에너지로 바꾸

는 실험을 선보였다.

빈명미씨는 반지름이 80mm인 원을 잘라 2개

의 원뿔로 만든 뒤 붙이고 조금씩 간격이 벌어

지도록 만든 단면 위에 올려 놓는 다음 잡고 있던 원뿔에서 손을 때 원뿔이 단면 위를 올라가는 실험을 통해 무게 중심의 원리를 설명했다.

빈씨는 "물체의 각 부분에 작용하는 중력 합력의 작용점인 무게 중심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라고 했다.

전남대 산업공학과 박사 출신인 김수동(44)씨의 실험도 특이했다. 김씨는 '얼굴 유형별로, 눈썹 모양에 따라 승용차·옷·구매 습성이 다르다'는 통계 결과를 통한 한후 산업 분야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광주·전남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박행순 센터장은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는 이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디지털 1세대'가 사라진다

'디지털 1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1990년대만 해도 '첨단'이던 PC 통신이 설 자리를 잃어 서비스를 종료하는가 하면 대표적 저장 매체인 플로피 디스크도 '퇴출'되고 있는 것이다.

◇하이텔, 굿바이=영화 '접속'에서 한석규와 전도연이 사랑을 쌓아가는 연극 고리인 PC통신. PC통신 대명사격인 하이텔은 오는 28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 지난 1992년 '하이텔'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한 뒤 15년만이다. 지난 2000년 가입자만 200만명에 달했던 인기는 이제 하루 접속자가 100~150명에 불과하다.

하이텔을 운영하는 KTH측은 "지난 2001년 초고속 인터넷 보편화에 따라 웹 서비스로 전환한 뒤에도 파란 화면의 PC통신을 고집하고 있는 '향수족'들을 감안한 서비스를 계속했지만 수익성이 나지 않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 이상 파란 화면에 느릿느릿 써지는 흰색 텍스트, '치익, 치'하는 연결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셈이다. PC통신에 '접속'해 밤새도록 채팅에 열을 올렸던, 수십만원에 달하는 전화비에 마음 고생을 했던 30대 이상 네이션들에겐 아쉬움도 크다.

하이텔이 서비스를 종료하지만 나우누리와 유니텔은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한다. ◇플로피 디스크, 퇴출=보편적 데이터 저장 장치였던 컴퓨터 플로피 디스크도 찾기 어려워졌다.

28일 서비스를 종료하는 하이텔 초기회면. 영국 최대 컴퓨터 유통업체인 PC 월드(www.pcworld.co.uk)는 최근 "앞으로 플로피 디스크를 더 이상 팔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3.5인치가 모두 팔리면 12개월 이내 매장에서 절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광주·전남 지역도 비슷해 금호 전자 상가 등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찾는 이용자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플로피 디스크가 내장된 컴퓨터를 취급하는 곳도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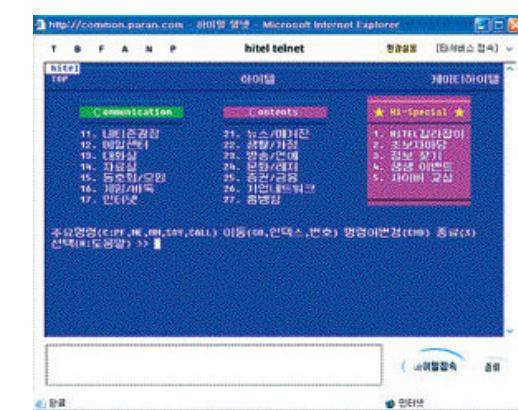
플로피 디스크는 지난 1971년 IBM이 개발한 뒤 소니가 지난 1981년 3.5인치 제품을 내놓으면서 가장 보편적 디지털 저장 매체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점차 동영상·그래픽 등의 데이터 용량이 커지면서 장당 1.44MB의 메모리 용량은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게 됐고, 수백GB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USB 메모리나 DVD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USB 메모리의 경우 4GB까지 판매되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플로피 디스크 뿐만 아니라 획기적 저장 장치로 각광받았던 CD-ROM 드라이브도 DVD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하이텔, 이달말 서비스 종료

###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퇴출



오는 28일 서비스를 종료하는 하이텔 초기회면.

〈하이텔 제공〉

월드(www.pcworld.co.uk)는 최근 "앞으로 플로피 디스크를 더 이상 팔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3.5인치가 모두 팔리면 12개월 이내 매장에서 절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광주·전남 지역도 비슷해 금호 전자 상가 등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찾는 이용자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플로피 디스크가 내장된 컴퓨터를 취급하는 곳도 드물다.

플로피 디스크는 지난 1971년 IBM이 개발한 뒤 소니가 지난 1981년 3.5인치 제품을 내놓으면서 가장 보편적 디지털 저장 매체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점차 동영상·그래픽 등의 데이터 용량이 커지면서 장당 1.44MB의 메모리 용량은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게 됐고, 수백GB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USB 메모리나 DVD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USB 메모리의 경우 4GB까지 판매되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플로피 디스크 뿐만 아니라 획기적 저장 장치로 각광받았던 CD-ROM 드라이브도 DVD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하루 30만명 이용 대형포털, 7월부터 실명제 의무화

### 20만 방문 인터넷 언론도

하루 평균 이용자 30만명 이상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 등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답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오는 7월27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계시판을 운영하는 30만명 이상의 포털,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통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에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화할 예정할 예정이다.

또 본인 확인이 성명, 연락처 등 본인 확인 관련 정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하며 본인확인 정보는 30만명 넘는 포털은 네이버·다음·야후·네이트·천리안·프리챌 등 16개 이

며, 인터넷 언론은 조인수, 디지털조선, 동아닷컴 등 16개사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KT, 디지털 콘텐츠 공모

KT가 4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2007 KT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작품 접수는 26일부터 3월31일. 모집 부문은 기획안 부문과 영상콘텐츠 등으로, 146개 작품에 대해 4억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또 선착순 1천명에게는 드라마 주제 디지털 OST가 수록된 USB메모리가 선물된다.

KT는 또 공모전의 저작권 문제 해결과 응모자 편의를 위해 음원 저작권업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배경음악 12곡을 콘텐츠 제작으로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UCC(사용자 생산 콘텐츠) 포털사이트를 통해 미지 편집 및 멀티미디어 제작 기능을 제공한다.

작품 접수는 27일까지.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현대공인증개사

☎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은행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 금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 ◀ 금히 구합니다 ▶

##### [건물]

① 병원건물이나 병원으로 임대가 가능한 건물을 현금 15억

② 임대 소득이 높은 상가 건물

##### [토지]

③ 전원주택부지·광주시내나 잠성, 담양, 화순

④ 광산구 관리지역·삼도, 본광

⑤ 광동공단 2차단지 부근 토지

⑥ 투자 가치가 확실한 토지

#### ◀ 금히 팝니다 ▶

##### [건물]

① 하남 2지구 택지

준주거울지 170평 9억5천만원, 170평 9억원, 최고의 상권

② 학원, 정비공장, 식당, 카페부지

일곡동, 지역지역 424평, 25m 도로에 접, 평당 200만원

③ 미륵동, 금마동, 흥덕동

생산지역 908평, 평당 180만원

④ 매월동, 유통단지 택지

농산물 공장집전 261평, 평당 600만원

⑤ 키센타, 식당부지

광산구 소촌동, 영광간 35m 도로변, 140평, 평당 280평

⑥ 모델·첨단 대지 198평 6천만원

⑦ 광동동 148.7평 8천900만원

⑧ 광동동 148.7평 8천900만원

⑨ 광동동 148.7평 8천900만원

⑩ 광동동 148.7평 8천900만원

⑪ 광동동 148.7평 8천900만원

⑫ 광동동 148.7평 8천900만원

⑬ 광동동 148.7평 8천900만원

⑭ 광동동 148.7평 8천900만원

⑮ 광동동 148.7평 8천900만원

⑯ 광동동 148.7평 8천900만원

⑰ 광동동 148.7평 8천900만원

⑱ 광동동 148.7평 8천900만원

⑲ 광동동 148.7평 8천900만원

⑳ 광동동 148.7평 8천900만원

⑳ 광동동 148.7평 8천900만원

⑳ 광동동 148.7평 8천900만원

⑳ 광동동 148.7평 8천900만원

&lt;p